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가정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주간 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경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2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2006년 제1차 청지기 훈련

“그리스도인의 바뀐 삶” (갈 2:20)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 (금요집회)

말할 수 없는 축복 (말 3:7-12)

B.C. 432년 경 이스라엘 사회는 정치, 종교, 경제적으로 대단히 암담한 상태였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사(Persia) 제국의 식민지로서 약간의 자치권만 있었고 경제적으로 가뭄과 병충해로 인해 논과 밭은 극심하게 황폐되었다(말 3:1). 종교적으로 이사야, 학개, 스가랴 등이 예언한 메시아 왕국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지금 당장의 안일과 행복과 만족을 위해 갖은 불의를 일삼는 자들로 인해 더욱 황폐해졌다(말 3:14). 하나님의 성전은 선민 이스라엘의 신앙 생활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좌악의 온상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말 1:7,10,13). 가정과 사회는 파괴되고 있었다(말 2:11,16).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고 있다. 이것은 구약의 결론이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한다. 신약의 문을 열어 주고 있다(말 3:1,17). 완전하고 철저한 행복(Complete Surrender)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한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행복을 원하신다

“너희의 온전한 심일조를 드려...”(말 3:10). 그 당시에 유대교의 제도에는 부분적인 것을 바친다는 개념은 없었다. 심일조를 하나님께 가지고 온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돈, 시간, 재주, 자질, 정력)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소유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완전한 소유권이요, 다른 하나는 맡아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것이다. 믿는 우리는 사실상 관리인으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진리이다. 이 진리를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참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은 없다(시 50:10,12; 욥 41:11; 학 2:8; 시 24:1).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완전한 그의 소유가 되기 원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부름함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창 22:16-18).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발 앞에 내어 놓는 것들을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레 27:30). 진실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원하신다(마 23:23). 이럴 때 우리는 그의 축복을 만끽하게 되며 영원하신 부름하듯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마 25:34,35,40; 계 2:10).

세상적으로 볼 때 부러울 것이 없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행 9:장). 그 후 바울은 이전과는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신 삶이었습니다(고전 2:2). 진실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삶! 이 바뀐 삶(exchanged life)을 살 수 있는 은총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의 시(17일)에 있을 2006년 첫 번째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민은 사라질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항상 바뀌지 않아 고민하고 괴로웠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말씀을 통해서 매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 준비하십시오. 말씀이 필요한 주와 분들에게 권면하십시오(딤후 1:9). 이제 십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 보라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계산 대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라...”(요 1:39).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복을 약속하신다(말 3:10)

완전하게 항복하며 순종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내어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 문은 이미 여러 번 열렸었다. 예레과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우셨으며 순교하였던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셨다(행 7:55,58,59,60). 오늘 본문에서도 하늘 문이 열린다. 이는 무한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기 위함이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 그때에 우리는 그만 거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고 말할 것인가?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지를 살피신다. 하나님의 이 축복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응답하신다.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가 기도를 멈출 때까지 계속해서 응답되었다. 과부의 기름병도 그가 부을 때까지 채워 주셨다. 아브라함도, 과부도 멈추게 하셨다. 요아사왕도 세 번 진 후에 깨닫게 하셨다(왕하 13:17-19).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충만하고 끊임없이 주시는 축복을 왜 우리들은 배우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하여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말 3:7-12). 완전한 행복의 증거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이 담양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우리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그때가 바로 완전하게 행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확실성에 대해 시험하여 보고도 호소하신다(말 3:10)

심일조를 바침으로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바치는가를 보시며 곧바로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어떤 자들은 부분적으로 바친다. 양심에는 석연치 못하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을 허락하신다(갈 2:20). 이는 우리로 실망과 절망에 빠지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또 높이가 더 높아지도록 도전하시기 위함이다(롬 8:38,39).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내일을 기다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오늘 여기에서 당장 시작하여 보라.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증거는 우리 앞에서 갈라질 것이다. 무서운 힘이 우리를 잡아챌 사슬과 차고를 태워서 녹일 것이다. 험한 풍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점점 더 안전한 안식을 찾게 만들어 줄 것이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축복을 원하는가?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자! 아멘.

HEAVENLY VISION

(13) at midday, O King, I saw on the way a light from heaven, brighter than the sun, shining all around me and those who were journeying with me. ... (17) delivering you from the [Jewish] people and from the Gentiles, to whom I am sending you (18) to open their eyes so that they may turn from darkness to light and from the dominion of Satan to God, in order that they may receive forgiveness of sins and an inheritance among those who have been sanctified by faith in Me.

(Acts 26:13~18)

After Pentecost, the Christian church in Jerusalem was bursting with new members. It started with 120 men and women, then added 3,000 and 5,000, and many more. With its sudden growth came persecution. Paul was its chief oppressor, killing Stephen, casting his vote of death upon saints, and tormenting any believers he could get his hands on. He hated the mere idea of Christianity because of his strong earthly vision. His eyes looked at Christians with contempt, and it angered him to such an extent that he wanted to eliminate them, until he saw another vision on his way to Damascus. He had two visions before him, his own and one from heaven. He told Herod Agrippa II, "at midday, O king, I saw on the way a light from heaven, brighter than the sun, shining all around me and those who were journeying with me" (v. 13). He confessed his life experience to Agrippa to show that he did not prove disobedient to the heavenly vision. He discarded his earthly vision with all its thoughts and purposes for living, to follow the heavenly vision. Why did Paul throw away everything for this heavenly vision?

Paul found the greatest love. He realized that Jesus Christ loved him unconditionally. Though in the past his heart hated the church and persecuted its members, even so Jesus still loved him,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It is hard for you to kick against the goads" (v. 14). It was useless for Paul to persecute the church because he was only hurting himself. Jesus told him, "But get up and stand on your feet; for this purpose I have appeared to you, to appoint you a minister and a witness not only to the things which you have seen, but also to the things in which I will appear to you; rescuing you from the Jewish people and from the Gentiles, to whom I am sending you" (vv. 16&17). Jesus wanted Paul to work for Him, "to open their [Jews and Gentiles] eyes so that they may turn from darkness to light and from the dominion of Satan to God, that they may receive forgiveness of sins and an inheritance among those who have been sanctified by faith in Me" (v. 18).

Paul experienced the gospel and wanted to honor the command of Christ. He finally realized that earthly things, like his thoughts and ways, were nothing. He told Timothy that the power of God "now has been revealed by the appearing of our Savior Christ Jesus, who abolished death and brought life and immortality to light through the gospel, for which I was appointed a preacher and an apostle and a teacher" (2 Tim. 1:10&11). This truth made it possible for him to say,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Phil. 1:21). The heavenly vision became the most important thing to him, "But whatever things were gain to me, those things I have counted as loss for the sake of Christ. More than that, I count all things to be loss in view of the surpassing value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for whom I have suffered the loss of all things, and count them but

rubbish so that I may gain Christ" (Phil. 3:7&8). He got to the point where he could say, "For I determined to know nothing among you except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1 Cor. 2:2). Amen. Jesus was his life, his all.

Paul felt he owed a debt to Christ and to the lost of humanity. He told the church in Rome, "I am under obligation both to Greeks and to barbarians, both to the wise and to the foolish" (Rom. 1:14). He knew that Jesus "died for all, so that they who live might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but for Him who died and rose again on their behalf" (2 Cor. 5:15). Knowing this, he was able to conclude, "Therefore,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as though God were making an appeal through us; we beg you on behalf of Christ, be reconciled to God" (2 Cor. 5:20). God's blessings through Jesus Christ are so immense, indescribably great. Jillions and jillions of dollars cannot even come close to the value of forgiveness. Jesus told His disciples, "Heal the sick, raise the dead, cleanse the lepers, cast out demons; freely you received, freely give" (Mt. 10:8). The majority of the world has lost the heavenly vision. Their spiritual poverty is enormous. They need teachers, like Paul, who understand how great a debt Christ paid on the cross for them.

Paul knew he must give an account of himself to God, "For it is written, 'As I live, says the Lord, every knee shall bow to Me, and every tongue shall give praise to God.' So then each one of us will give an account of himself to God" (Rom. 14:11&12). Are you ready to give an account of yourself to God? Have you witnessed the gospel to those who God has placed before you? He gave you something, "To one he gave five talents, to another, two, and to another, one, each according to his own ability" (Mt. 25:15). Whatever you have, Jesus asks that you be faithful with it until death, and He will give you the crown of righteousness, eternal life, "And he called ten of his slaves, and gave them ten minas and said to them, 'Do business with this until I come back'" (Lk. 19:13). If you love Jesus, why don't you do what He said, "Why do you call Me, 'Lord, Lord,' and do not do what I say" (Lk. 6:46)? He commands you to be His witness,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Paul confessed the heavenly vision to the gentile king. He loved it. He was happy to witness, even if his hands and feet were in chains. He loved Jesus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for him, gave him the heavenly vision, and the opportunity to share the gospel. Do you have heavenly vision or earthly vision? As a Christian, do you ask the Lord to give you life goals so that you can be a success? If so, shame on you! Come to the Lord, please return to Jesus Christ. There is no greater love than His and no greater honor than to serve Him. You owe a great debt to Christ and to the lost. I hope your account before God will be great because His heavenly vision is great. 

다음 주일 설교

하늘의 이상

⁽¹³⁾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¹⁷⁾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¹⁸⁾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케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13~18)



김성완 목사

해보다 더 밝은 빛

성령 강림 후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는 새로운 신자들로 갑자기 복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120명에 불과했던 성도가 하루에 3천 명, 5천 명 이상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런 성장과 더불어 박해 또한 심해졌습니다. 바울은 그중에서 박해를 주도했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스테반을 죽였고, 성도들을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졌으며, 다치는 대로 신자들을 괴롭혔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단순한 사상을 혐오했습니다. 세상적인 비전이 너무나 강하게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멸에 찬 시선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극도로 분노해 있었던 바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적어도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또 다른 이상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바울 앞에는 두 가지의 비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자신 만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야그림바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13절). 바울은 거역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던 하늘의 이상에 대해 자신의 생생한 경험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하늘의 이상을 체험한 이후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상, 삶의 목적과 함께 세상적인 비전을 던져 버렸습니다. 오직 하늘의 이상을 쫓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왜 이 하늘의 이상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을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그가 교회를 미워하며 성도들을 핍박했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받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냐”(14절).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될 뿐 아무 소용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서 내가 네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아들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16,17절).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케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18절).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복음을 깨달았기에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사상이나 방법 같은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 가치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랑을 폐하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딤후 1:10,11). 이 진리 때문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골 3:4). 하늘의 이상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빌 3:7,8). 바울의 말 속에서 그의 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아멘. 예수님은 그의 생명이요,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내가 빛진 자라

바울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모르는 모든 자에게 빛진 자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 말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 1:14).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후 5:15).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후 5:20).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은 매우 광대하고 놀랍습니다. 죄사함의 가치는 제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들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 10:8).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이상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헛되고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값을 치렀는지 알고 있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바울은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물이 내게 풀을 것이요 모든 허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롬 14:11,12).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을 자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셨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님께는 두 달란트를, 하나님께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느니라”(마 25:15).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그것에 충성했는데는 물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과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온 열 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눅 19:13). 만약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어 주어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눅 6:46) 주님은 여러분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땅의 가장 멀고 후미진 곳까지 말입니다!

바울은 야그림바 왕에게 자신이 본 하늘의 이상에 대해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 이상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작고도 매어 있었지만 그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의 이상을 보여 주시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 주님께 간구하는 여러분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꼭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빛진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여 주신 하늘의 이상은 정말 위대합니다. ■

수요 1부 예배 메시지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벧전 3:7)

베드로는 아시아 교화들을 향해서 권면한다. 특히 외모를 지장하는 데만 빠져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 무엇인지 밝혀 주고 있다(벧전 3:1,4). 바로 기도이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사시되 주의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하였느니라"(벧전 3:12). 자신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벧전 3:14,17). 그러나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맡기며 기도해야 막힘이 없는 기도를 할 수 있다(벧전 3:7).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요 14:14, 요일 3:21, 대하 7:14).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를 생각지 않는 자들 자신의 의로운 일, 책임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들은 기도가 막히게 된다. "남편들 자들이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곳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3:7). 아내를 존경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다(엡 5:25,28).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용서해 주지 못하는 자들 죄인을 용서하지 않을 때 기도가 막히게 된다. "저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막 11:25). 기독교에는 용서와 은총의 진리가 있다. 이 뜻을 용서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는가? "누가 남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골 3:13).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용서할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후 5:17).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심할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약 1:6,7).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믿음의 기도, 믿음의 손을 펼 수 있다(딤후 2:28). 믿음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게 한다(막 11:23).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막히지 않는다이다

21:22, 히 11:6).

다른 연약한 자들 돌보지 않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는 막히게 된다(잠 21:13).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상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요일 3:17). 말기루에서 나신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찾아 가서 만나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헛된 자만을 찾고 있지 않은가(골 10:31,32)? 우리가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볼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마음에 우상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길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된다. "인자가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거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곤한을 용납하랴"(렐 14:3).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한다(호 4:17).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우상이다. "자녀들이 너희 자신을 저지 우상에서 멀리하라"(요일 5:21). 마음 안에 자리잡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릴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죄를 회개치 아니한 자들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사 58:1,2).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사 66:18).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자신이 살아 있는 자들 자신이 살아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약 4:3).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항상 자기 부인을 못하게 한다. 우리는 철저히 자기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자신을 죽이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요일 5:14). 자신이 철저히 부인되어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은총을 입은 신자는 창조주와의 교제가 막혀서는 안 된다. 기도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내를 생각지 않고, 용서가 없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마음에 우상을 가진 채 자신의 뜻을 내세우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는 막히게 된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똑똑해지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단순해 지라! "나의 눈, 귀, 입을 열어 오직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소서"(산 48:5장).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재정위원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단단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



이 훈 (장로, 재정위원장)

교회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은총임을 찬양합니다! 이에 재정위원회에 속한 저희들은 더욱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만 운영되는 재정이 되도록 더욱 예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은총과 순종

금년에 책정된 예산이 지난해처럼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총이며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남보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온 성도들은 모든 것을 아끼고 절약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의 행동은 곧바로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 복음을 위한 교회가 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위원회에서 더욱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재정이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와 감사

작년 연말에 있었던 특별계회와 공동의회를 되돌아볼 때 감사, 감사뿐이었습니다. 2005년도 결산 및 2006년도 예산에 관해서 모든 제직과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상세히 보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지만 모든 재정을 복음을 위해서 투명하게 사용했기에 한 걸 뿌끄러운 없이 주님과 온 성도에

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세한 예·결산 내역을 확인한 제직과 성도들은 모든 것들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온 교회 성도들이 재정 업무와 회계 처리에 대해 굳은 신뢰를 보여 준 것이기에 더욱 바람직한 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2006년도에도 더욱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재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십자가만을 붙들겠습니다(골 2:6,7).

말씀과 기도

복음이 있기에 소망이 넘치는 2006년도에 주님이 주신 총령의 5대 목표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은 더욱 간절한 기도와 재정적인 밀발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앙한 예배와 천국일꾼 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지출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도, 특히 더욱 영적으로 준비된 선교를 위한 지원은 계속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원 부지 위에 신축할 양로원 및 실내체육관 공사과 분당 구역에 부속된 석조 안전 잔디 및 보안 공사 등 진행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책정된 예산 이외의 더 많은 재정이 뒤편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모든 일을 앞두고 걱정하지 않습니다(렐 2:27).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요일 2:6). 단지 저희들은 더욱 기도하며 말씀대로 재정이 지출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4:17).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더욱 재정위원회에 맡겨 주신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도록 순종하겠습니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과 봉사자들도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올바르고 투명한 재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재정위원회 십자가를 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안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재로 드릴찌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렐 21:7).

성령님께서 도우셨던 하루 하루

현직인들은 대부분 불교인들이어서 전도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성령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갔던 곳은 초등학교였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어린이들은 우리에게 받은 전도지를 잘 읽었고, 우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들은 어린이가 또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다른 학교를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전날 복음을 들었던 어린이가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다니며 전도지를 읽으며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는 고등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등학교생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의 형들은 전도지를 잘 읽었습니다. 특히 한 형은 처음에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았는데, 전도지를 받아 읽더니 나에게 '고맙다'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그 형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역시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특히 이변에 전도했던 지역에 다시 가서 전도했던 동생들과 형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양정오(중등2부)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2월 10일~17일까지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는 대학부 선교팀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순 준비해야 할 것과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겠습니다.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여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영혼들을 위해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동유정)

순 사람으로서의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기에, 죄 가운데 연약하고 어리석은 내 마음은 죽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은 예수님을 전하며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예란)

순 처음 가는 선교라 많이 떨리고 두렵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 믿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김진희)

순 너무 부족하고 작은 그릇을 귀히 쓰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사랑하는 팀원 하나 하나가 온전히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김성운)

순 헌약이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믿음으로 선교에 임합니다. 다른 선교지에서 얻은 경험과 헌신을 토대로 하는 선교가 아닌 모든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는 뜻대로 선교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최한나)

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나약한 저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써주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의지로 하는 선교가 아니라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서도 시험 받지 않고 팀원 모두 승리자가 되어 돌아올 수 있게 기도 많이 해주세요! (김용원)

순 죄 많은 저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현승기)

순 정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사용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십자가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윤하연)

순 부족한 저를 대학부 단기 선교팀장으로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헌전인을 위한 도구가 되고 헌전인들은 우리의 도구가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 기간 동안, 성령님의 중심으로 팀원이 하나가 되어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여 사역에 임할 때, 팀원 모두가 십자가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박옥련 집사, 팀장)

충현의 기도 용사들이여!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기로 감사를 받는다.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을 주의 피로 씻으시고 아با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주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죄인되었을 때 나를 백자가 구원하시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 주셨다(렐 1:5). 이 일을 충현교회를 통해 감당케 하신 주님, 다른 아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온 천하에 알리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선교(행 1:8)의 사명을 주짓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권능을 덧입고자,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기에 주께 부르짖어 간구한다. 주의 권능과 도우심을 바라며 "주일 4시 선교기도회"에 구별된 시간을 드려 "성령으로 하나되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라는 주의 말씀 따라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심자가 군병들의 승리를 위해, 보내는 선교사로서 후방에서 기도한다. 모세가 후방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싸움터에 나간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처럼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모두가 하나되어 기도해야 할 것이다.

홀려져 있는 충현의 기도 용사들이여! 성령으로 하나되어 힘을 모아 기도의 불씨를 활활 태운다. 주의 나라가 온 땅에 편만하도록!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저 남방 산호섬과 저 북방 얼음산까지! 주께 손을 높이 들고 주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바라나타 주 예수여'

정옥림(집사, 선교기도회 자원봉사자)

현재 사역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2월 1일(수) ~ 2월 9일(목)	대학부	김철형
2월 1일(수) ~ 2월 9일(목)	대학부	신상수
2월 1일(수) ~ 2월 9일(목)	대학부	이양호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1월 23일(월) ~ 1월 31일(화)	에바다	주순희
1월 25일(수) ~ 1월 31일(화)	청년1부	김윤필
1월 30일(월) ~ 2월 4일(토)	청년1부	이병근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2월 6일(월) ~ 2월 15일(수)	대학부	이용수
2월 6일(월) ~ 2월 16일(목)	대학부	이신동
2월 7일(화) ~ 2월 15일(수)	대학부	이근호
2월 7일(화) ~ 2월 15일(수)	대학부	윤서민
2월 7일(화) ~ 2월 16일(목)	대학부	유상태
2월 7일(화) ~ 2월 16일(목)	대학부	박홍규
2월 8일(수) ~ 2월 16일(목)		별엘
2월 10일(금) ~ 2월 17일(금)	대학부	박옥련
2월 10일(금) ~ 2월 17일(금)	대학부	오순도
2월 10일(금) ~ 2월 17일(금)	대학부	권영숙
2월 10일(금) ~ 2월 17일(금)	대학부	임창식

· 청지기 훈련을 기대하며 ·

말씀을 통한 변화

매번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길을 밝혀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매번 청지기 훈련 때마다 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생각해 볼 때 2월 17일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작년 청지기 훈련 때 들었던 예수님의 기도(눅 6:12), 내가 홀로 있는지라(겔 9:8), 그리스도인의 자기부인(마 26:39)의 말씀을 떠올리면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최근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던 저에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흔들림없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고, 그래서 저의 험기와 자존심 그리고 고집보다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더욱 기도하게 하였고, 자기를 부인하며 모든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 가고 있는 저를 바라볼 때마다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는 17일에 있을 청지기 훈련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바뀌어진 삶”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기다려집니다. 주께 말씀인 갈라디아서 2:20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남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되돌아보지 않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바뀌어진 삶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혜옥(집사, 10교구)

말씀의 힘

말씀의 힘은 매우 컸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던 제가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조금 읽다가 덮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제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성령님은 제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시간이 즐거워 성경을 다섯 번이나 통독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것도 몰랐던 저의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머리가 아닌 가슴에 쌓이는 기쁨 속에 있으니 참으로 저절로 나왔습니다.

주님은 또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저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선교지에서 만난 영혼들에게 풍성한 말씀을 전하니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닌, 말씀과 선교를 통해서 참 행복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총은 저의 삶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동양화를 전공한 저는 단지 동양화만을 그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저의 손을 잡아서 성화를 그리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제가 감히 그럴 수 없는 거룩한 그림이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저는 더욱 십자가만을 바라보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작품이 저의 작품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림이 되게 하옵소서.”

둘러봐보면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입고 있던 세상의 더러운 옷을 벗고 주님의 옷으로 갈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말씀이 주는 평안이 저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2006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배종락(집사, 16교구)

새가족부를 수료하며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 처음 3주 동안은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주위 분들의 격려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박상수)

♥ 딸의 권유로 시작한 믿음 생활이 예수님의 은사로 지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송운영)

♥ 세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께서 불러 주셔서 이렇게 수로한 것이 정말 기쁩니다. 이제 전국의 소망이 생겼기 바랍니다. (이유남)

♥ 친구와 함께 새가족부에 다니면서 어린 아이로 돌아가 다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기쁩니다. 그날 교인인 왔다 갔다 했던 저에게 새가족 양육부를 통해 주님께 대해서 알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임연나)

♥ 처음 남작친구의 소원을 들어 주려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저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김민경)

♥ 교회에 등록을 했지만 나이 드신 어머니가 지방에 계셔 두 주에 한 번은 지방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문득 이렇게라도 교회에 다녀야겠다는 믿음이 생겨 지금까지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교회 나오는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린 새싹을 길러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정수영)

♥ 6개월의 과정을 마치도록 해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생활하겠습니다. (정현우)

♥ 예전에도 어머니따라, 선생님따라, 친구따라 교회에 왔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한 폭 귀로 듣고 한 폭 귀로 흘렸습니다. 그러나 총현교회 새가족부에 와서 마음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순리대로 가면 그 끝이 주님께로 향한다는 것을 모르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야 주님께 왔습니다. 온종일 때마다 저 하나 포기하지 않고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송문택)

♥ 6개월이라는 짧고도 긴 시간 동안 교회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새가족부 모든 분들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자기를 부인하여 신앙 생활하겠습니다. (이광주)

♥ 교회는 그냥 왔다갔다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것과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알고 싶습니다. (김병직)

♥ 남편을 따라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제 더 열심히 주님께 대해 알고 싶고 섬기고 싶습니다. (서홍옥)

(절리: 편집실)

교회 탐방 96 바울 전도회(2교구)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다. 오직 복음에 기
초한 삶을 살며 십자가만을 증거하였다. 바울처럼 복음에 군
거 서 있는 2교구 바울 전도회원들을 초대한다.

교회 안에서 2교구 바울 전도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학동, 삼성동, 압구정동, 청담동의 55세 이상 85세까지
의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 광 집사, 회장)

2006년도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 주변 전도에 힘을 쓰고 교구의 전도 활동을 지원할 계
획입니다. 무엇보다 잃은 양을 찾는 일에 전도회원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 광 집사)
전도회원들의 참여를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들을 참여시킬 연례 체계를 세우
고 있지요. 이 일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솔선수범하여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영환 집사)

교구 안에서 바울 전도회의 역할은?

교구 행사 때, 집안과 만형처럼 여러 전도회를 복음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먼저 기도하고 있
습니다. (김문성 집사)
먼저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정우 집사)

2교구 바울 전도회의 특색은?

대부분의 회원들은 베드로 전도의 때부터 동고동락한 사이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주
안에서 친구가 되어 신앙 생활을 했지요. (이영환 집사)
그래서 2교구에서는 바울 전도회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모습에 서로 우
애를 받고 있습니다. (김문성 집사)
저희들은 귀인이기에 겸손히 수밖에는 없습니다. 겸손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정우 집사)

바울 전도회에서 느끼는 보람은 무엇입니까?

주변 전도를 하면서 열심이 생겼고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김지철 집사)
저도 한 집사님의 인도로 바울 전도회에 왔는데 아주 기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이제
은혜로 충만합니다. (이종은 집사)
우리 회원들이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데 특히 식당 봉사에 열심히입니다. 식당에서 신나게 일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시는 모습을 보면 자원봉사의 모범이라
는 느낌이 들고 함께 신앙 생활을 하는 즐
거움이 있습니다. (김 광 집사)

앞으로 바울 전도회의 나아갈 방향은?

구성원들이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
적 관계가 되어 서로 격려하며 십자가를 전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종은 집사)

남전도회가 활성화되어 가정에서는 예

배를 드리고 직장에서는 큐티를 통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환 집사)

앞으로 가정에서는 제사장이요, 교회에서는 바울 전도회원으로서 새해에는 어떤 마음으
로 신앙에 임하시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철 집사)

먼저 가정이 서고 지역과 교구가 설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환 집사)
데육 주의 일에 열심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육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더 많
이 상고하겠습니다. (이정우 집사)
전도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주어진 모든 일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종은 집사)

권면의 말씀은?

회원들이 모두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좋겠습니다. (이영환 집사)
선포되는 메시지만다 바램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
이 열리고 성령 충만해집니다. (김지철 집사)
전도는 주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영혼 구원에 주력하기를 기도합니다.
(김 광 집사)

신앙의 오랜 연로보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려는 믿음의 객역이 있어 든든하다.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지향하는 전도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전 2:2).

(편집실)

내 영혼의 주를 찬양



찬 32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저에게 큰 은혜를 주는 찬송은 찬송가 325장 "주 예수 대문 밖에"입니다. 예전엔 잘 부르
지도 못 하고 많이 헛바치기도 못 했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04년 그 1대 고등부에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친구 중 한 명을 통해서 잘 알게 된 찬송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줬으나 단단히 잡가지 못들어 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
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처라." 저는 항상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공부와 친구들이 예수님보다 더 먼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때 주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신 채로 슬퍼하시던 모습, 한탄하시던 모습을 생각하니 예
수님께 너무나 죄송할 뿐입니다. "문 두드리는 손은 못박힌 손이요 또 시시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림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제가 지은 죄들이 하나 둘씩 마릿
속에 떠오르듯 세상적인 모습 때문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항상 죄 가운데 살고 있
지만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찬송을 드릴 때마다 저의 가슴에서부터 눈까지 가득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며 주님
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마음에 오셔서 저와 함께하여 주세요." 이 찬송은 분
명히 저의 삶에 큰 위로와 은혜를 주는 찬송입니다. 죄에 찌든 저의 마음을 주님게로 돌려 주는 찬양입니다.
다. 그리고 이 찬송은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
씀이 내 죄를 죽은 나를 너 베풀 하소나니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시 떠나지 마
소서." 아멘

김지현(예쁜잔디)

♡ 새 가 록 읊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392	김남현	19 대학부	이재우(5)	410	토마스	19 외선부	유현숙(5)
393	김수진	19 대학부	김희준(7)	411	바베	19 외선부	박계자(5)
394	조철준	19 대학부	이형배(1)	412	이반자우	19 외선부	자르길(19)
395	신지은	19 중등부	신호남(13)	413	한철도	19 외선부	자르길(19)
396	김은자	19 장년1부	이소영(1)	414	홍이영희	19 외선부	자르길(19)
397	김진숙	5 장년2부	장태원(8)	415	송단디바도	19 외선부	나영매트렌(19)
398	김지현	19 청년1부	류기성(19)	416	나루나	19 외선부	배지미(11)
399	박유미	19 청년1부	김영민(4)	417	마사비트	19 외선부	양순옥(10)
400	김두림	19 대학부	노미소(14)	418	김재민이한	19 외선부	자르길(19)
401	조재하	19 중등부	이진호(12)	419	김영민이한	19 외선부	김지현(10)
402	유예민	19 대학부	류진우(19)	420	박이정	19 대학부	김지현(10)
403	최남숙	5 장년1부	이태희(9)	421	변준희	10 청년1부	이태희(11)
404	송재현	19 대학부	류영우(19)	422	전소미	10 청년1부	정원근(11)
405	송이연	19 청년1부	조동현(10)	423	변민지	10 청년1부	정원근(11)
406	윤화수	16 장년1부	박혜연(16)	424	권영경	19 대학부	우정현(19)
407	김은경	1 청년2부	박홍규(2)	425	차	19 외선부	박옥현(5)
408	권영성	12 장년1부	류영우(12)	426	홍한석	19 고등부	홍수영(19)
409	오소영	19 대학부	김영준(14)	427	한국영	19 고등부	한태백(19)

※ 찬양회원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35호 생가록 등록일로 오시기 바랍니다. ※

* 부록사			
이종대 2.2구	정현인 5.2구	박기인 예매부 1.2구	김영훈 청년1부 3.2구
여국근 4.2구	안장덕 5.2구	나광영 1.7구	김동태 3.2구
교광환 13.2구	위광란 4.2구	김익환 1.4구	윤현태 1.7구
이희식 5.2구	최홍준 5.2구	하홍철 1.2구	장중신 16.2구
양재삼 5.2구	이성진 5.2구	조규호 5.2구	이재영 5.2구
이경준 5.2구	이정수 5.2구	김준희 5.2구	홍진섭 5.2구
정성영 5.2구	이광수 5.2구	김태석 5.2구	김정훈 5.2구
* 여전도사			
신동자 1.2구	유인숙 1.2구	한영준 1.2구	홍순애 1.2구
이유진 5.2구	김말자 6.2구	안태순 6.2구	강덕필 1.4구
최은진 7.2구	전근희 16.2구	김영순 8.2구	김경희 15.2구
이복순 19.2구	A 류진희 9.2구	B 김영진 13.2구	강영미 5.2구
옥미자 4.2구	이복순B 3.2구	강숙자 5.2구	
* 찬양강습 강습구			
* 찬양지휘자	서운성	권원섭	
* 찬양독보자	김소연		
* 찬 시	소하	* 찬양민주자	장원희